

지역 소식통



김제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큰 호응'

김제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이 참여기업과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업(㈜지티산업, 대신신재생산업) 2개사를 선정했으며 지난 5월 17일부터 1차 교육(주)지티산업을 시작해 오는 7월 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7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 교육(대신신재생산업)과정을 연속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일상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내 작업환경에서 실제 자주 사용하는 업무 용어와 필수 안전 수칙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어 소용능력 향상과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인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김제시는 지난 9일 체재형 가족실업농장에서 귀농·귀촌인, 실업농장 입주자, 귀농귀촌협의회의 회원, 지역주민 등 2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농기계 사용 경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더 완주답게 세우는 정치로”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6·3 지방선거 이후 과제 제시 이원택 지사 당선인 “시군통합 재추진 않겠다 약속” 환영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이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선거 이후 완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민자치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제시했다.

유익식 의장은 10일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9대 완주군의회는 마지막 임기회를 열어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기고자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 속에는 완주의 미래를 향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완주군 유권자 8만7,607명 가운데 5만5,88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기권과 무효표를 포함한 3만4천여 명의 숫자 안에는 완주 지역정치가 반드시 읽어야 할 침묵의 민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동안 완주군의회가 강조해 온 주민자치 1번지 완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완주의 문제는 완주군민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완주의 미래는 완주군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를 통해 완주군민은 통합을 주도해 온 정치권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며 “정당정치가 지역정치를 대신해서는 안 되며, 지역정치는 군민의 삶과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주가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일 완주를 방문한 이원

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1997년 이후 30여 년 동안 갈등과 상처를 반복해 온 완주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 뜻깊은 약속”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제 완주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주를 지키는 정치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완주를 더욱 완주답게 단단히 세우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결과와 책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주민자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정

당 및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 지역정치가 삶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 기권을 통한 항의의 민심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고 완주 지역정치가 새로운 문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장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선거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갈라진 마음을 수습하고 다독이는 일”이라며 “투표한 군민과 투표하지 않은 군민, 찬성한 군민과 반대한 군민 모두가 완주의 주인인 만큼 민심을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모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완주군의회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회기가 완주 지역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함께 주민자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이 10일 열린 제3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분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완주미래행복센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국비 10억 원 확보... 단열 성능 보강 등 에너지 성능 대폭 개선

완주군의 지역 거점 공간인 ‘완주군 미래행복센터’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준비해 온 미래행복센터의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신청한 전국 335곳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사업 타당성 및 에너지 절감 효과 평가를 거쳐 총 318곳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확보한 국비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대폭 보강하고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신재생 설비 도입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 고유의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선정 소식에 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한 이용자는 “건물이 오래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많이 추웠는데, 이제 따뜻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바뀐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문화관광재단, 시나브로

치유길 × 무(無)해한 캠프 운영

완주문화관광재단이 구이저수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걷기와 친환경 캠프를 연계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2026 시나브로 치유길 x 무(無)해한 캠프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완주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인 구이저수지 둘레길(시나브로 치유길)을 따라 걷는 ‘슬로우 워킹’을 즐긴 후,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일원에서 자연 속 쉼과 친환경 실천을 결합한 ESG 친환경 캠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캠프는 이번 일정을 시작으로 향후 3~4회차 프로그램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 군민 앞에 답해야”

이주갑 완주군의회, 5분 발언서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의 침묵과 공방이 아닌,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질의와 문정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며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행정적 책임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을 군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당시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힐 정도로 군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각오가 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신상발언 이후 현재까지 군수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수를 향해 “공동기자회견 제안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

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직접 설명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군민들은 더 이상의 침묵이나 공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이 길어질수록 군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통해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동기자회견이든 별도의 설명회든 어떠한 방식이든 군민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답변이, 회피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결론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 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농업·농촌에 ‘혁신’

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농업·농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관련 부서장, 전북특별자치도 유용열 스마트원예팀장, 한국농어촌공사 이대석 스마트추진단장, 전북연구원 배근기 책임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김제 농업·농촌 성장을 견인할 주요 과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과업 내용은 △ 김제시 스마트농업 재배환경, 시설구조 등 종합분석, △새만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세부 계획 수립,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단지 조성 방안, △스마트농업 단계별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다.

시는 앞으로 김제형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및 첨단 농업기술 확산

을 통해 농생명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5 기준 경제총조사

김제시가 오는 12월부터 7월 22일까지 지역 경제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조사 대상은 김제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부설 등 복부(SBR)를 적극 활용해 별도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1인 유튜브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가 조사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통계의 포괄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김제시의 총 조사 대상은 약 8,487개 소이며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 매출액 등 공공정책과 디지털 전환 지표 등 특성 항목을 포함해 구성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